

## 아산 황토누에마을 단지조성 사례

이석중

아산 황토누에마을 대표

충남 아산시 송악저수지 상류지역의 강장리는 청정지역의 지표로서 누에치기를 중심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면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점과 아산시 근교라는 이점을 살려 실버농업형 청정누에마을로 도시은퇴자를 위해 황토잡실과 황토주택에서 누에와 함께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특성화한 사례입니다.

그 동안 기능성 양잠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며,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는 생명농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정누에마을 단지를 조성하여 양잠산물의 안정생산기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청정지역 양잠육성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전국 13개소를 청정누에마을 적지로 선정 한 바 있습니다.



<아산 청정누에마을>



<입주주민과 함께>

농림부는 이를 토대로 2004년 지역특화사업으로 5개소와 2005년 지역 균특 회계 사업으로 2개소를 사업 지원하여 누에를 환경의 지킴이로 이용함과 동시에 실버농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에는 환경에 매우한 곤충으로서 매우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며 담배밭도 일정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정도이다. 이처럼 환경에 예민한 누에를 이용하여 환경의 지표로 이용하여 상수원지역 등 환경 절대보호지역 등에서 누에를 사육하여 환경과수꾼 역할을 하게하는 것입니다..

과거 6~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어디를 가도 뽕밭을 쉽게 볼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쉽게 뽕밭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양잠산업이 많

이 감소된 원인도 있겠지만 누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산골짜기로 밀려간 탓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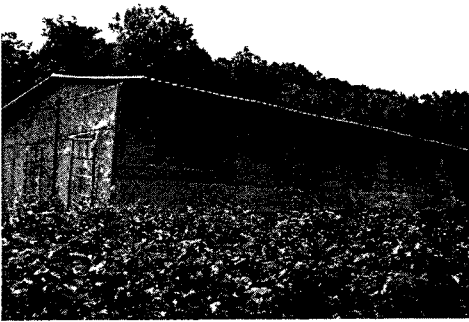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2003년부터 농림부와 각도 잠업전문가로 구성된 청정누에마을 선정평가단에 의해 각 지역의 여건과 농민의 양잠 의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정누에마을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청정누에마을은 남다른 자긍심을 갖고 환경을 보호하고 양잠산업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청정누에마을은 상수원보호지역, 양잠전업마을, 신규. 확대지역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03년 8개소, '04년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총 6개소에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투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충남 아산은 실버농업형, 경남 함양은 무공해 양잠 특산물생산, 전북 부안은 신활력 누에타운 조성, 전북 진안은 오디주 생산 등으로 특성화를 각각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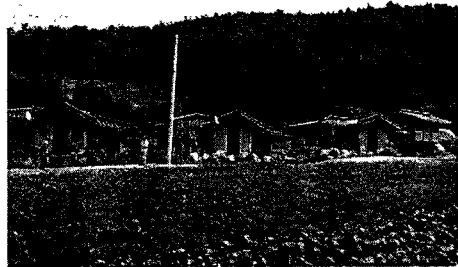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의 청정누에마을은 송악저수지 상류에 위치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산과 계곡으로 되어 있고 토성은 자갈이 많은 양토로서 배수가 양호하고 경사도가 7~15%, 해발 175m정도이며 안개가 적어 뽕나무 재배의 적지입니다.

특히 아산시는 온천지역이면서 현충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휴양도시로서 아산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3백만 명이 넘어 누에관련 상품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고, 참여농가 모두 과거 누에사육에 많은 경험이 있어 질 좋은 누에관련 제품생산이 가능합니다.

강장리 지역의 사업규모는 기존의 4ha의 뽕밭에 9농가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 6ha의 신규뽕밭을 추가로 조성하여 연간 누에 500상자를 사육할 예정에 있으며 주요 생산품목은 누에가루, 누에술, 뽕잎차, 오디술 등을 생산하여 송악농협과 관광 상품으로 직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이며, 현재 60평의 황토잠실 10동과 13평의 황토실버주택 4동을 지어 외지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황토잠실>



<뽕밭과 황토주택>

비록 송악면 강장리의 양잠규모와 참여 농가수는 작지만 새로운 개념의 노인친화형 청정누에마을을 도입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누에치기와 달리 노후생활도 즐기면서 소득생활도 영위하여 보람과 경제활동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높여간다는 것이 아주 돋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장리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며 아산시내에서도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은퇴자들이 함께하기에도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 은퇴자들을 유치해서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노인들에게 알맞은 황토잠실과 13평정도의 황토주택 1동과 80평정도의 텃밭을 제공하며, 주요 일거리로 텃밭 가꾸기와, 누에치기, 산채 나물 캐기, 토속 음식 만들기 등으로 최소의 경제활동을 겸한 건강한 노후생활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무튼 본 사례가 성공적인 모델로 개발되어 도시은퇴자나 고령자를 위한 건강장수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국 각지에 널리 보급되어 잠업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청정누에 마을이 많이 개발되어 누에와 함께 잘 사는 농촌 환경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연락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1구 239번지 이석중 HP 011-9345-9802)